

보도시점 2023. 11. 21.(화) 배포 2023. 11. 21.(화)

재외동포청, '2023 재외동포정책 학술포럼' 개최

내달 6일 인천서 '지구촌 한민족 공동체 구축을 위한 재외동포 정책' 주제

1. 재외동포청(청장 이기철)은 오는 12월 6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위치한 경원재 앰버서더 호텔에서 '지구촌 한민족 공동체 구축을 위한 재외동포정책'이라는 주제로 「2023 재외동포정책 학술포럼」을 개최한다.
2. 이번 포럼은 이기철 청장의 기조연설과 총 3개의 세션에서 16명의 연사·패널·특별출연자 등이 참석해 발제와 토론으로 진행된다. 이덕로 한국행정학회 회장과 김진용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청장, 고상구 베트남 K&K 트레이딩 회장 등이 참석해 축하한다.
 - '재외동포 제도 개선방안'이라는 주제의 제1세션에서는 이진영 인하대 교수를 좌장으로, 조태준 상명대 교수, 오진희 재외동포청 기획조정관, 임해용 성신여대 교수, 이민정 변호사가 발표와 토론에 나선다.
 - 이들은 재외동포청 중심의 재외동포 제도 통합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 제2세션에서는 '재외동포청 개청 의의와 향후 발전 방향'을 주제로 지난 5월 제정된 재외동포기본법을 바탕으로 재외동포정책 기본 계획 및 재외동포청 로드맵의 구체적인 이행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
 - 임채완 (사)재외동포연구원장을 좌장으로, 송석원 경희대 교수, 김민철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정책국장이 발제를 하고, 이어 김범

수 서울대 교수, 김웅기 한림대 교수가 토론을 진행한다.

- 마지막 특별세션은 재미동포 영화감독인 전후석 감독*과 국내에서 수학중인 재외동포 대학생 및 재외동포청 직원 등이 ‘재외동포, 미디어를 통한 소통과 공감’을 주제로 SNS 등을 활용한 재외동포 및 우리 국민과 재외동포청간 유기적 소통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 재미동포(미네소타 출생) 영화감독으로, 초선(Chosen, 2022), 헤로니모 (2019) 등 디아스포라 영화를 제작

3. 이번 포럼에는 일반인도 홈페이지(<http://okaforum.kr>)에서 사전 등록 하면 현장 참여가 가능하다. 또한, 재외동포청 유튜브 계정을 통해서도 모든 세션을 온라인으로 생중계할 계획이다.
4. 이기철 청장은 “이번 포럼은 출범 100일을 기념하여 발표한 재외 동포청 로드맵에 따른 동포청의 역할과 향후 재외동포정책의 방향을 논의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포럼에서 학계 전문가· 동포인사· 일반 국민 등이 제기한 다양한 의견을 재외동포 정책 수립에 참고·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1. 축사 및 발제자 주요 약력.

2. 행사 포스터. 끝.

담당 부서	재외동포청 동포지원제도과	책임자	과장	송 찬 식	032-585-3179
		담당자	사무관	장 경 호	032-585-3180
			외무행정관	홍 민 영	032-585-3189